

News

우리은행 '라임 구제노력' 인정받나...금융권 '선보상' 기폭제

데일리안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로 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100% 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의 징계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보여 라임 사태 당시 손해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는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한계...더 높은 대출금리 '도돌이표'

연합뉴스

중소기업 지원이 설립목적인 IBK기업은행의 중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책은행임에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 받았던 사항 기업은행 관계자는 "같은 신용등급 구간이라 하더라도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보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아 금리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힘

BNK금융, 영세 자영업자 연체이자 깎아준다

매일경제

BNK금융그룹이 25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 올해 말까지 지원하면,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는다.

DGB대구은행, 해외부동산 매입 사기?...140억 날릴 판

뉴시스

지난해 5월 대구은행 자회사인 캄보디아 스페셜라이즈드뱅크가 캄보디아 프롬펜에 은행부지 명목으로 약 500평을 매입, 부동산 대리인에게 1200만 달러(140억원)를 건넸다. 해당 부지는 캄보디아 정부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 관계자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값 전액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매입과정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미래에셋, 브라질 부동산 펀드 투자자 2400명에게 50% 보상 검토

e대한경제

미래에셋대우가 설정 이후 -85%라는 처참한 수익률로 펀드를 환매하게 된 개인 투자자 2400명에게 50%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매입가 5400억원이었던 랜드마크빌딩인 호사베라타워(Rochavera Towers)를 자산으로 한 이 펀드는 브라질 경기 부진으로 헤알화 가치 1/3로 떨어져 수익률 크게 부진

한화손보 자회사 캐롯, 한화자산운용에 매각 무산

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려던 계획이 무산 한화생명이 작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그 자회사 한화자산운용이 캐롯손해보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계약을 해제

외화보험 주시하는 금감원, 3월에 실태 검사

조선비즈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과당 경쟁하며 외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해 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주로 외화보험의 환차손 위험에 대한 고객 안내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미래에셋생명 실손 판매중단

e대한경제

미래에셋생명, 3월부터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전격 중단.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판매를 포기한 것으로 중소형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 중단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 손해율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판매 시 손실이 누적됐다. 미래에셋생명의 실손보험(2세대) 손해율은 2017년 77.6%에서 2018년 82.3%로 상승했으며 2019년에는 95.7%를 기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